
2022년 제10호 방송심의보고서

2022. 3. 4. ~ 3. 10.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2. 3. 4.	시청률	0.062

【총 평】

‘2월 수출 539달러 ‘역대 최대’, 공급망 점검과 수출 안정화 방안’에서는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어나고, 2월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 경제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망 안정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 의미와 함께 정부 대응 등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5천 달러 돌파 의미와 관련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국민 총소득 추이를 대표로 처리해 경기 회복과 더불어 3년 만에 반등한 GNI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흐름 전반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점이 몰입감 있게 전달됐다. ‘알뜰 신잡’에서는 ‘꼭 알아야 할 청년 정책 상황별 목돈 만들기’로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와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군복무 장병 전역 후 목돈 마련까지 세분화해 설명한 구성이 좋았다.

【구성 및 내용】

‘2월 수출 539억 달러 ‘역대 최대’ 공급망 점검과 수출 안정화 방안’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호조세 배경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수출 급증으로 3개월 만에 무역 흑자 전환 달성 배경과 정부의 수출 총력 대응 방안을 알 수 있었다. 2월 수출이 539달러를 달성해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2월 수출의 특징을 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한 것으로 447억 달러에서 올해 539억 달러로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세계 경제가 전환점을 맞아 수출이 줄어든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 수출이 16개월 연속 증가했고,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다. 특히 품목별로 살펴보면 15개 가운데 14개 분야의 수출이 증가했고 9개 지역 모두 11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유일하게 자동차 부품만 감소했는데 이는 생산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연말까지 적자이었다가 수출 급증으로 인해 무역 수지가 흑자로 된 것이 아주 고무적이다. 이렇게 기록적인 성장을 이뤄낸 수출 시장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대러시아 제재에 따른 기업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지역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수출입 기업,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해결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물류난 해소와 무역금융 등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상반기 무역보험 100조 원, 수출마케팅에 1,100억 원 투입, 그리고 물류난이 안정화될 때까지 선복 공급과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의 경제이슈로는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경기 회복과 원화 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초로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다는 내용을 전했고,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한 후 4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며 우리나라가 확연하게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했다는 증거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3. 4.	시청률	0.011

【총 평】

새봄과 함께 입학과 졸업, 그리고 취업시즌의 시의성을 살려 코로나19로 빚어진 대학가 비대면 졸업식을 다양하게 구성해 시선을 끌었고, 취업준비생에게 면접시험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소식이 수용자 관심과 만족도를 높였다. 이 밖에 'Z세대' 예술인이 바라본 현대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이 작품 활동을 통해 세대간의 갈등 해소를 시도한 점이 돋보였다. 또 사라져가는 우리꽃을 영상에 담은 '사진에 담긴 우리꽃'과 명맥이 끊어진 향토음악을 복원한 지역예술인 이야기도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했다.

【구성 및 내용】

- 코로나19 장기화 속 아쉬운 '비대면 졸업식'
비대면 졸업식을 하는 각 대학의 풍경을 살펴보았다. 조선이공대학교는 메타버스의 가상공간에 졸업생 아바타가 참석했다. 성균관대학교는 블록체인을 통한 졸업장 수여 등 다양한 방법의 졸업식을 연출했고 건국대학교는 비대면 졸업식을 개최했다.
- 무료 '정장' 대여, 취업에 날개 달자
취업 준비생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무료 면접 복장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남성정장 여성장장 뿐만 아니라 구두 액세서리 등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취업날개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예약가능하며,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 휴대폰 속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연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과 은행 등에서 법적 효력이 기존의 신분증과 동일하다. 현재는 시범 기간이라 서울 지역 8개 경찰서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지역 6개 경찰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천사의 마음으로' 대학 재학 중 982시간 봉사
대학 재학중 982 시간의 봉사 활동을 한 정재은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난치병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에서 팀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정씨의 최종 목표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워 아프리카 어린이들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 '꽃 향에 취해' 식물탐사대가 사진에 담은 우리 꽃
충북 단양군 소백산에서는 한국의 재발견 식물탐사대 대원들이 죽령에서 비로봉까지 탐방로를 따라가며 우리꽃을 사진에 담은 작업을 펼쳤다. 한국의 재발견 식물탐사대는 지난 10년간 지리산, 한라산 등 전국의 산을 찾아 65회의 탐사활동을 수행한바 있다.
- 명맥 끊긴 '광주 풍류음악' 50여 년 만에 복원
광주의 빛고을 국악전수관은 사라져 가는 풍류음악을 복원해 무대에 올렸다. '다스름'을 시작해 16곡으로 구성되었으며 거문고, 해금 등 국악기가 어우러졌다. 이번 공연은 1970년대 이후 명맥이 끊어진 풍류음악을 지역 전통예술인들이 복원해 이뤄졌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3. 5.	시청률	0.039

【총 평】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김치, 퓨전 김치’편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세계인의 인기를 얻어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김치를 소재로 세계인들이 김치에 열광하는 이유를 소개했다. 특히 현지화된 김치의 비결, 김치의 효능, 김치 만들기 도전 등 깊이 있고 다양하게 한국 김치를 분석, 진단함으로써 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린 기획이 탁월했다.

또한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등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푸드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K푸드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현지화, 김치 원료 제품화 등 과제를 짚어보았다. 이 밖에 한국전통 발효식품으로서 김치의 건강 측면에서의 효능을 심층 진단해본 부분이 소구력을 높였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문화를 거론하며 김치를 단순히 요리가 아닌 문화적으로 접근한 구성이 유의미했다.

【구성 및 내용】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 김치에 대해 알아봤다.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시장을 강타하며 세계인의 밥상에 오른 K-푸드 ‘김치’를 전격 분석했다. 대한민국 김치 소믈리에1호 ‘양향자 요리연구가’가 출연해 김치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내 분석하고, 김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들을 설명해준 구성이 돋보였다. 삼국시대부터 내려 온 김치는 1967년 베트남 전쟁 당시 ‘참전 한국군인’을 위해 최초로 김치 통조림을 보급했다.

멕시코 일간지는 ‘김치, 영혼을 달래는 음식’, 아르헨티나 일간지는 ‘한국 음식 김치의 모든 것’ 소개하는 등 김치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1,9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김치를 사먹는 것을 넘어 직접 김치를 담그는 열풍이 일고 있다, 외국인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인증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레시피를 소개했고 한국산 김치재료와 숙성 과정 등을 공유하고 있다. 전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부터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까지 김치관련 사진을 SNS에 올리며 김치 사랑을 드러냈다.

우리나라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며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김장문화를 이어가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김치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항산화, 항균효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인기 비결은 현지화된 맛으로 김치 타코, 김치 파스타, 김치 피자, 김치 샐러드 등 현지식과 조화를 이루는 김치 요리들이 발달되어 있다.

‘한국을 달리는 데이브의 V-로그’에서는 아부다비에 사는 독일인 하누씨가 김치 요리에 대해 알려달라는 영상편지를 받고 데이브가 퓨전 김치요리 음식점을 찾아 피자김치떡볶이, 치즈 김치전 등을 먹고 남은 피자김치떡볶이에 김과 밥을 비벼 먹으며 김치 요리를 즐기는 모습을 잘 담아 낸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3. 5.	시청률	0.015

【총 평】

“저는 대한민국 최연소 이장입니다.”는 전남의 오지 마을에 바람 씩러왔다가 마을 이장이 된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올해 스물여덟 청년의 시골 생활을 유쾌하게 그려냈는데, 어르신에게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20대 청년이 제주가 돼 마을 당산제를 모시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주인공은 논밭에서 농사지으며 사는 것도 아니고 목축업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귀촌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우리나라 최연소 이장으로 마을 곳곳을 누비며 손이 필요한 일을 돌보는 모습은 우리 농촌의 밝은 미래를 읽을 수 있어 훈훈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구성 및 내용】

대한민국 최연소 이장직을 맡고 있는 주인공은 서울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오두 마을로 귀촌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고 취업을 고민하는 시기에 주인공은 자신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오두 마을은 오지 마을로 가구의 절반이 귀촌 가구이고, 평균 연령도 매우 높은 이곳에 청년은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마을 이장직을 맡았다. 특히 동네 어르신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낡은 철교를 철거하는 행정 일에 솔선수범하고 서명을 받으러 가는 길에 어려워하는 핸드폰 사용법도 친절히 가르쳐 드리고, 길에서 만난 어르신의 건강을 살뜰히 살피는 온 동네의 손자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걷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이웃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다. 20대의 젊은 청년에게 그것도 타지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잘하도록 격려해주는 주민들의 모습도 정겨웠고, 무엇보다 젊은 청년이 어르신이 대부분인 지역 주민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 새로운 귀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네 주민은 “세상 어떤 손자가 대운 씨만큼 곰살맛을 수 있을까”라는 말처럼 “젊은 이장님이라 문서를 작성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런 걸 아주 잘해요. 하지만 젊으니까 어른들의 정서를 알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이장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계속 마을에서 살면서 지역 청소년들의 학습지도사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아동센터의 학습 선생님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명사진을 찍고 한복집에 들려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한복도 마련했다. 집으로 돌아와 처음 시골 생활을 제안한 형님댁에서 저녁을 먹으며 내일 있을 당산제 준비를 마무리했다. 자신에게 “이장이란 삶의 전환점”이라며, 이장을 하지 않았으면 함평이라는 사회 자체를 관찰자처럼 바라봤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냥 관찰자가 아니라 실제로 플레이어가 돼 직접 발로 뛰는 사람이었던 경험이 앞으로도 크게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삶이 거대한 모험이라면 오두 마을에서 즐거운 도전과 방향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3. 6.	시청률	0.049

【총 평】

‘친북’에서는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정체와 그 의도를 분석해 보고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모한 위기 조장보다 비핵화와 대화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경제난속에 지금 필요한 것은 비핵화 의지와 대화이며 우리도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결책을 도출해 설득력을 높였다. ‘궁금한 한반도 이슈텔링’은 전국민을 울린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을 떠올리며 민족적 비극을 환기시키고 고령층 이산가족의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점에서 이산가족의 상봉의 재개 메시지를 부각한 점이 돋보였다. 각본없는 드라마로 78% 시청률을 기록한 모녀상봉과 남매상봉의 극적 장면이 감동으로 연결됐다.

【구성 및 내용】

지난 2월 28일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는 2월 27일 고도 620km, 사거리 300km 날라 간 탄도미사일 발사체로 분석했고,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의 차이는 둘 다 똑같이 대기권 밖으로 발사하는데 폭탄을 장착하느냐 위성을 장착하느냐의 차이이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달러로 식량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다른 목적이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피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위협하려는 행동이다. 북한이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개최 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제재 완화 협상 기회로 보는 것 같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이란 의견과 관심 끌기, 존재감 과시로 볼 수 있는데 관심 끌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대선에서 북한 문제를 이슈화 시키려면 의도가 있다. 또한 존재감 과시 측면에서 본다면 북미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미중 패권 경쟁 등에 쏠려 있어 후순위로 밀려있는 북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돌려놓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바꾸기 위해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라토리움 파기 선언을 철회하고, 우리나라 새 정부와 대화하고,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면 국제사회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동서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통일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대화 중심의 대북정책은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의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일회성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가 밀려드는 사연으로 1983년 6월 30일부터 180일 이상 방송을 이어갔다. 이 방송을 통해 전국민이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응원하며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었고, 1985년 9월 20일 판문점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됐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2. 3. 6.	시청률	0.000

【총 평】

써니힐 '이금빛나'와 써니힐의 이중생활에서는 2007년에 데뷔한 15년 차 아이돌 그룹 '써니힐'의 멤버 이금빛나 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최근 '놀면 뭐하니'의 도토리 페스티벌에 출연해 역주행을 하고 있는 써니힐의 데뷔 이야기와 오랫동안 방송 활동이 없던 순간에 찾아온 '놀면 뭐하니'의 출연 제의에 얽힌 사연을 전달했다. 이금빛나씨가 아이돌이 아닌 생계형 직업을 찾으며 겪게 된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승마장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보현스님과의 인연과 결혼식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성을 이금빛나 씨가 가수라는 기본에서 연결해야 했으나, 연결점 없이 구성해 몰입감이 떨어졌다.

【구성 및 내용】

드라마 '최고의 사랑'의 OST '두근두근'을 비롯해 'Midnight Circus', 'Goodbye To Romance'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지만 추억 속에 묻히고 있던 '써니힐'은 최근 MBC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면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 '써니힐'은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이후 급격한 암흑기를 겪으며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했다. 작년 11월 말 회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려고 했던 써니힐은 마침 걸려온 출연 제의에 눈물을 흘릴만큼 반갑고 기뻐했다고 한다. 다시 재회한 멤버들과 오랜만에 무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감회가 떠올랐는데, 현재는 소속사와 계약은 유지하면서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름이 써니힐인 이유는 제작사 관계자분이 지나가다 본 건물의 이름이었던 써니힐이 좋았다고 해서, 그렇게 그룹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금빛나 씨는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소속사의 오디션을 보러 다녔는데 그 당시 사기를 당했던 경험도 있고 점점 연예기획사에 대한 불신이 쌓여갈 때 브라운 아이드 소속 대표에게 발탁돼 연습생이 되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큰 성공을 거두는 걸 지켜보면서 꿈을 꾸었고, 아이유 소속 기획사로 옮기면서 정식 데뷔를 했지만 초기에 투자한 금액이 많아서 멤버 개인에게 돌아간 소득은 크게 없었다고 한다. 지금도 팬들은 언젠가 써니힐이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할 거라고 믿고 응원해 주는 팬들의 사랑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금빛나 씨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대가 사라지면서 오랫동안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회생활에서 세상의 혹독함을 알게 됐고 그걸 극복하면서 자존감이 생겼다고 한다. 현재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의 마케팅과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가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남편과 결혼해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의 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끈대 할매는 자신처럼 생활력이 강하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이금빛나 씨의 앞날에 행운을 빌어주었다.

프로그램			
방송일자	2022. 3. 6.	시청률	0.001

【총 평】

‘광기의 집단학살-보은 민간인 희생사건’편에서는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순박한 농민들이 무참하게 집단 학살당한 역사적 아픔을 증언과 학살 장소를 탐문 취재하여 실체를 규명한 기획이 뛰어났다. 보은지역에서 학살당한 6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족의 생생한 증언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희생사건의 아픔을 부각해 역사적 실체 규명의 의미가 컸다. 고령층 유족의 생생한 증언과 의문사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문서 등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한 점이 설득력을 높였다. 당시 희생자 중에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지사가 희생당한 사례, 이장에게 도장을 맡겼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도연맹에 가입돼 희생당한 사례 등 무모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국가사과, 위령사업 지원 등의 권고사항을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등 화해조치가 나온 것을 소개해 ‘진실 그리고 화해’ 기획의도를 잘 살렸다.

【구성 및 내용】

한국전쟁 발발직후 충북 보은군 주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에 끌려갔다. 끌려 간 주민들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무참히 학살되었다. ‘광기의 집단학살-보은 민간인 희생사건’편에서는 죽음의 이유도 모른 채 72년 전 죽어간 산간마을의 비극을 조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보은군 보도연맹 가입자는 200여 명으로 파악된다. 그 중 120여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희생자 대부분이 젊은 남성이었다. 각자 다른 여건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했지만 국가 권력의 잘못된 판단으로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가감 없이 남아 있는 가족들의 인터뷰를 통해 풀어 낸 구성이 흡입력을 높였다. 왜 무고한 민간인 희생이 빚어졌나? 당시 국가의 공권력의 불법행위가 어떻게 전개됐나? 이런 비극이 가족과 사회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점, 역사적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이 무엇인지를 짚어가는 탄탄한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박원근 지사는 민족공산주의를 표방한 신인구락부를 조직해 지역청년들에게 반전, 반일 사상을 고취시켰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옥고 이후 고향인 보은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해방이후에도 경찰의 감시는 계속되었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 희생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보은군 보도연맹 희생사건’을 조사하며 항일운동을 재조명하고, 경찰 참고인 진술을 통해 보도연맹 결성을 주도한 것은 경찰이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경찰은 보안대와 함께 보도연맹 학살을 주도했다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희생당한 분들과 유족들의 억울함을 알려주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가 보은군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수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며 향후 한국전쟁 전후 보은군 민간인 학살에 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판단이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3. 6.	시청률	0.000

【총 평】

‘실감콘텐츠로 만나는 문화유산’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우리 문화 유산을 결합한 실감 콘텐츠를 활용해 새롭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전했다. 특히 문화유산이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첨단 기술과 문화유산을 접목해서 실제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서 몰입해서 체험하는 곳이 실감 콘텐츠 체험관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의 기술력으로 오늘날의 감성과 감각에 맞게 다시 만든 것으로 시각과 청각, 촉각 등 오감을 활용해 체험하는 공간이다. 특별한 지식 없이도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즐거운 전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성 및 내용】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을 첨단기술과 접목한 실감콘텐츠로 만들어 지난 11월 ‘이달의 뉴딜’에 선정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유산들을 첨단기술과 접목시켜서 실제 문화유산들이 있었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가서 직접 경험하는 것 같은, 몰입감 높게 경험하도록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실감콘텐츠를 만들었다. 특히 시각과 촉각, 청각 등 오감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경주박물관, 제주박물관, 춘천박물관 등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에 13개의 국립박물관이 있다. 각 박물관의 특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실감체험관을 만들었다. 평면적 공간이던 기존의 박물관이 첨단기술과 우리 문화유산에 결합해 새로운 전시 경험을 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새로운 시도를 위해 팀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며 즐겁게 작업을 완성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을 만들고, 그 공간에 들어가면 문화유산과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특히 정조의 화성행차 기록인 대규모 행차를 모션캡처 기술로 실제 사람들이 직접 걷는 것처럼, 궁중무를 추는 것처럼 만들었다. 고구려 문화재는 아직까지 중국이나 북한에 남아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문화임에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만들었다. 고구려 고분이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유가 그 건축기술에 있기 때문에 무덤의 건축구조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학예연구사들은 대부분의 전시실은 정적이고 유물을 글로만 설명하는데 영상과 이미지 위주로 보다 보니까 더 쉽고 극장에서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며, 압도적인 규모로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실감콘텐츠 제작은 2018년부터 시작했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미루었다가 오픈했다. 오픈했다가 다시 문을 닫는 상황도 있었지만, 다시 문을 연 후 꾸준히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다. VR기구 착용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관람객들은 수장고나 보존과학실처럼 실제로 관람이 불가능한 곳을 체험할 수 있어서 만족해하고 있다.